



법무보호공단 전북, 전주보훈요양원과 청령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지난 5일 전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전주보훈요양원(원장 신재철)과 함께 지역사회 청령문화 확산을 위한 '청령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복지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기관 간 청령 인식 제고를 위한 실천 의지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캠페인에서는 청령 선서 및 상호 협력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되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했다.

이순세 지부장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청령한 조직 문화를 실천하는 것이 국민 신뢰의 기반이 된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철 원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청령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이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비전대, 재정지원사업 성과 공유·역량강화 워크숍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5~6일 무주덕유산 리조트에서 재정지원사업 성과 공유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산학협력단, RSE사업단, 이차전지신산업 선도전문대학사업단 등 주요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 재정지원사업별 사업 소개 및 우수 사례 발표 △ 사업 성과 관리 효율화 방안 교육 △ 생생형 AI 활용 사례 발표 및 실습 △ 사업단 간 네트워킹 구축 프로그램 등을 공유했다.

특히 실무자 대상 생생형 AI 활용법 소개와 사례 중심의 시연이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성과관리의 중요성과 업무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정은성 기자

남원 도통동, 얼음정수기 지원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30일 동안 무더위 쉼터에 폭염 대비 취약계층 집종돌봄기간 운영의 일환으로 얼음정수기 4기 설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얼음정수기 설치 업체는 지난 8월 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얼음정수기 설치 및 소독 서비스를 제공이 협약된 사항이었다.

부령1차아파트 주민은 기존 정수기가 있었지만 고장이 나 폐쇄 신고 후, 냉온수기로 대체를 해온 상태로, 시원하게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수 있도록 "얼음정수기"를 설치해 폭염에 수분섭취와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죽향동, 고독사 위기가구 특별지원사업 추진

남원시 죽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이웃과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고독사 위기가구를 위한 특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자원봉사자와 위기가구를 한 쌍으로 맺어 지속적인 유대감을 형성,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죽향동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모금회 등이 협력하여 운영된다.

특히 죽향동 지사협 자원봉사자와 도움이 필요한 가구(사탑)를 1:1 매칭을 통해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진행하여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시원한 음료 · 다채로운 체험 즐기러 오세요’

정읍시 임산물체험단지, 임산물 · 목재 · 죽목 체험 · 임산물 음료 · 커피 등 제공

정읍시 임산물체험단지가 무더운 여름을 맞아 시원한 음료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임산물체험단지는 지역 임산물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와 목재 문화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조성된 시설로 △차향다원 △차향문화관 △목재문화체험장 △향기온실이 운영되고 있다.

차향다원에서는 복분자 요거트스무디, 오감차, 산딸기 껌, 팥수 등 더위를 식히는 음료와 할매순환 · 피로 회복에 좋은 죽목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특히 6월부터는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카페라떼, 바닐라라떼 등 커피 메뉴를 선보이며 관광객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차향문화관에서는 청정 임산물을 활용한 △호두초코 쿠키 △버섯 피자 △슈링클스 키팅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마련돼 있다.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다도차상 △국민수삼꽃이 △강아지조형 등 청소년 인기 프로그램과 △도마 만들기 등 성인 맞춤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체험단지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며, 차향다원은 오전 10시~오후 7시, 그 외 시설은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차향문화관과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임산물과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시원한 음료, 커피를 즐기며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과 문의는 산림휴양시설팀(☎063-539-5778~5779)으로 하면 된다.



정읍시 임산물체험단지가 무더운 여름을 맞아 시원한 음료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임산물체험단지는 지역 임산물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와 목재 문화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조성된 시설로 △차향다원 △차향문화관 △목재문화체험장 △향기온실이 운영되고 있다.

차향다원에서는 복분자 요거트스무디, 오감차, 산딸기 껌, 팥수 등 더위를 식히는 음료와 할매순환 · 피로 회복에 좋은 죽목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특히 6월부터는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카페라떼, 바닐라라떼 등 커피 메뉴를 선보이며 관광객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차향문화관에서는 청정 임산물을 활용한 △호두초코 쿠키 △버섯 피자 △슈링클스 키팅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마련돼 있다.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다도차상 △국민수삼꽃이 △강아지조형 등 청소년 인기 프로그램과 △도마 만들기 등 성인 맞춤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체험단지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며, 차향다원은 오전 10시~오후 7시, 그 외 시설은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차향문화관과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임산물과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시원한 음료, 커피를 즐기며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과 문의는 산림휴양시설팀(☎063-539-5778~5779)으로 하면 된다.

전북대 학생들,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최우수’

전북대학교 GTEP 사업단 소속 임동찬·전승현 학생(경영학과)으로 구성된 팀 '지팀가이즈(GTEP Guys)'가 최근 전북테크노센터에서 열린 전북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성과로 지팀가이즈는 전북 대표로서 행정안전부 주관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진출 전국 무대에 나설 수 있게 됐다.

6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군산대학교가 공동 주관했으며,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간 총 37개 팀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4팀, 장려상 2팀이 선정됐다.

지팀가이즈가 선보인 출품작은 '전북수출비서 수출길라잡이(수길이)'다. 이는 제품정보 입력만으로 수출 준비 전 과정을 자동화해주는 플랫폼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의 실효성과 창업 연계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동찬 학생은 "수길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수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본선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둬 전북대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승현 학생은 "이번 수상은 팀워크와 끈기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정읍시, 원예 기반 치유농업 프로그램 성과

정읍시가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운영한 원예 기반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높은 만족도 속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25년 농업기술 산학협력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예산 전액을 지원받아 추진됐다.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운영된 이번 프로그램은 우울증 고위험군 10명을 대상으로 응동 대당미를 치유농장에서 지난 5월 29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90분씩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씨 뿌리기, 삼목 이식, 관리, 수확, 그리고 수확물을 활용한 장식·요리 활동 등 식물의 생애 주기를 직접 체험하며 정서적 안정과 자아효능감을 높였다.

원예활동을 통해 흙을 만지고 식물의 성장을 관찰하는 과정은 긴장과 불안을 완화하고 우울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줬다. 특히 인지행동전략과 연계해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조절하고 스트레스 인지율을 낮추는 효과도 확인됐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사회적 기능 회복과 자존감 증진 향상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순회계 보건소장은 "이번 원예기반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정신질환자와 고위험군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과 포용적 회복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삶의 의욕을 되찾게 해줬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5기 사랑 나눔 봉사활동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6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지사장 이창호)와 함께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는 지난 4월부터 약 5개월간 전북지역 대학교, 관광명소, 소셜 미디어 등 온·오프라인에서 직접 기획 및 제작한 콘텐츠를 통해 전북은행의 브랜드를 홍보해 왔으며, 자발적인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봉사활동을 마련했다.

이 날 봉사활동은 제방 및 우정의 선물상자 포장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20여명은 흑임자 머핀 만들기를 위한 재료 손질부터 반죽, 포장까지 모든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당일 만든 머핀은 전주시 관내 취약계층 등에 전달했다.

북쪽의 선물'은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의 청소년들이 전쟁의 고통에 시달리는 세계 각국의 친구들에게 '선물상자'를 만들어 보낸 것에서 시작한 것으로,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는 전북RCY(청소년적십자)가 해외봉사활동 시 개발도상국 초등학생들에게 전달할 선물상자 200박스를 포장하며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일동은 "지난 5월 벽화그리기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전북은행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체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서포터즈 활동에 큰 자부심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울 때 변함없이 함께하는 전북은행의 마음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창군 김원석·김영창 부자, 이웃돕기 성품기탁

고창군 김원석(대함꽃백화점 대표)·김영창(대함조경 대표) 부자(父子)가 지난 5일 고창군청을 찾아 백미 10kg 100포(360만원 상당)를 이웃돕기 성품으로 기탁했다. 이는 전 북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영창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분들의 식탁에 온기가 더해지길 바란다"며 뜻을 전달했다. 김원석 대표는 "이번 기부가 이웃들에게 가족 같은 온기를 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부자지간이 함께한 이번 기부는 그 마음과 의미가 더 깊다"며 "이웃을 향한 따뜻한 나눔이 고창 전역에 퍼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송천1동 시골감자탕노란양갯길비에 착한가게 현판

송천동 주민센터에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착한 가게·착한카페 등 나눔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송천동 주민센터(동장 전지현)와 송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성경훈)는 6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간 부를 시작한 송천1동 관내 시골감자탕노란양갯길비(대표 박병직)를 방문하여 사회복합공동모금회 '착한가게'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을 전달한 '시골감자탕노란양갯길비'는 친절과 맛으로 지역주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음식점으로 박병직 대표는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농협, 순정축협 축산농가에 '해피컨설팅'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과 순정축협(조합장 남삼국)은 6~7일, 순창한우명품관과 정읍한우명품관에서 축산농가 250여명을 대상으로 '해피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순정축협 70세 이상 원로조합원을 대상으로 미술공연 등을 제공하여 농업인과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해피컨설팅'은 전북농협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를 맞아 축산인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기획했다.

/오상근 기자



당신멋져 봉사대, 김제 용지면서 장수사진 촬영 봉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지난 5일 용지면 수해마을, 임삼마을 경로당에서 '당신멋져 봉사대(회장 조원경) 회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센터 봉사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인생 2막 시작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용지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장수사진 촬영은 전문가들의 헤어·메이크업 재능기부와 봉사대원들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으며, 촬영한 사진은 보정 및 인화, 액자 제작 작업 등을 거친 후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김제=곽태기 기자